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위치와 사역 문제  
부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도 바울의 목회(행20:17-35절 중심으로)

발제자: 오상규

서론

필자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였고, 부교역자 생활을 11년 하였고, 현재 중국에서 한인 교회 담임 목회를 만 7년을 갓 넘고 8년째 접어들고 있다. 담임목회 초반 4년은 소위 '실용주의' 목회를 하였다. 내 소망은 속히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내면에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설교할수록 기독교 전체 교리에 대한 얕은 지식이 드러나고 의외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성경 사상과 교리를 충분히 모르고 있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섭리 가운데 그 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붙잡게 하셨다.

필자는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위치와 사역 문제'라는 주제를 사도행전20:17-35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들의 원리들을 나누고 싶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심한 반대를 받으면서도 3년을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sup>1</sup> 그의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살펴보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의 목회자의 위치와 사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하려고 한다.

## 1. 목회자는 겸손과 눈물로 섬기며 각종 시험을 참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한다.<sup>2</sup>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상황들이 많았다. 먼저 그는 개인적인 난치병이 있었다. 그 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고후12:7)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고쳤으나 정작 본인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었다.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도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끄러운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회를 비방했고, 박해하였고 폭행하였었다(딤후1:13). 그는 자신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표시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의 죄인을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지에 대한 샘플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딤후1:16). 그러니 사역의 기본에는 겸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고 큰 사망에서

<sup>1</sup> 행19장

<sup>2</sup> 행20:19

가까스로 건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sup>3</sup> 이때 아시아는 단연코 에베소였을 것이다.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의 연속이요 사형선고를 당한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큰 사망이 자신에게 임박한 것처럼 느낀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눈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인들이 결코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20:31)고 하기 때문이다. 사역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듣는 교인이었다면 눈물로 훈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태도가 많았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사려된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하면서 온갖 시험을 참고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해외이민 교회이다. 즉 이 말은 대놓고 장로교라든지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이다. 교단이 소속되지 않았고 독립교회인 셈이다. 한국에서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채로 중국에 와서 교회당을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목회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같았으면, 속한 교단이 장로교이니 장로교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낸들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면에서 겸손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교회의 정체였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교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할 줄 알았다. 최소한 교인들이 질 높은(?) 영의 양식을 먹으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해외이며 경제적 여파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직장 따라서 거처를 옮기는 교인들이 많아서 작년에 출석 교인들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였다. 소위 바른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전에 비해 성장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교인들이 줄어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교인들이 동요하였고 목회방식에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너무 교리만 가르친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듣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필자에게는 모두 겸손하라는 싸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겸손의 도구는 일부 교인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이었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 신앙의 배경을 가졌다. 목회 중간에 설교의 내용이 바뀌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교리와 신조로 바뀌자 당황하는 교인들이 생겨났다. 특히, 오순절 계통을 배경으로 한 교인들과 알미니안 신학을 배우고 자란 교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목사가 긍정적이고 밝은 설교를 하지 않고 패배주의와 세상에서 실패하라는 식의 설교를 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에 다름아닌 필자의 목회에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었다. '목사님이 변했다(부정적인 의미로)'고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팠다. 가장 열심이 있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주니 고독했고 외로웠다. 만약 한국에서 내가 속한 교단 교회에서 섬겼으면 최소한 가르치는 내용

---

<sup>3</sup> 고후1:8-10

에 대해선 비난을 받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 때 진리에 타협함이 없이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를 필요로 하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주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수면아래 잠잠해있던(?) 남자 교인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생긴 것이었다. 평소 말수가 없는 남자들이 목사의 바뀐 설교를 들으면서 잠잠하게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교리와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목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있는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두 개 밖에 없다. 다른 교회는 교권이 강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교인들이 목사에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쉽게 교회를 옮기지를 못하였다. 그런 요소도 필자에게 담대함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근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한 분의 목사는 - 그도 역시 개혁주의 목회를 하는데 - 필자의 경우처럼 중도에 개혁주의 목회로 전환하자 교인들 절반이 다른 교회들로 떠났다는 우울한 소식을 알려왔다. 그 대도시에는 한인 교회가 12개가 넘기 때문이었다. 즉 교인들이 선택할 교회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지역은 중소도시이며, 교인들의 교회 선택의 폭이 좁아서인지(교회당이 단 2개밖에 없다) 불만이 있지만 계속 붙어있게 되었다.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주께서 필자로 하여금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배우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자신이 섬긴 교회들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는 알마니안 주의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인내하며 성경적 가르침을 고수했을 때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sup>4</sup>.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겸손케 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채찍이 있지만 겸손하게 진실되이 참고 인내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는다.

19세기 미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페이지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의 증언은 사역자들이 왜 겸손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내 마음이 통회하기 전까지,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복종되고 녹기 전까지, 마치 내 영혼이 지금 막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느끼기 전까지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기 전까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sup>5</sup>

## 두 번째는 목회자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적인 장소에서든 사적인 장소에서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

<sup>4</sup> 이안 머리, 로이드존스 평전3, 김귀탁역, 부흥과 개혁사, p.61

<sup>5</sup>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신호섭역, 부흥과 부흥주의, 2005. P.577.

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행20:21)’이라고 하였다. 이 가르친 내용은 비단 에베소 지역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사도의 신념이었고 어느 지역에서나 가르쳤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행20:24)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행20:25) 또는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행20:27)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내용(행20:32)이기도 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또는 설교와 전파의 강조점을 ‘회심’으로 여겼다면 그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죄인이 아닌 자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 기준에서 빛나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비뚤어지고 무능한 자라는 진리를 믿지 않고는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믿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라고 믿지 않고는 이렇게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배타적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중생하게 하지 않고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전제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성령이 아니고서 누가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임하여 복음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알아듣게 하고 감정적으로 열렬히 동의를 얻게 하며, 의지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겠는가? 여기에 인간과 구원에 대한 핵심 사상이 요약되어 있다고 본다.

며칠 전 한 뉴스를 읽으니, 불교 사찰의 승려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아베마리아’를 노래 불렀다고 한다. 성악가 출신의 승려는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매혹시켰으며,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천주교 추기경이 조계사를 방문하기에 앞서 천주교 미사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에는 으레 댓글들이 달리는데 대부분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신교는 이런 종교적인 화합을 보고 배우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사람의 구원이 단지 넓은 배려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있다면 그 핵심은 인간의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없으즉 죄사함이 없다는 구원의 배타적 진리를 모르면 종교혼합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어차피 다 똑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안 머리는 ‘오늘날의 전도자는 복음이나 신학의 이해가 전혀 없어도 기독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위험에 생각에 익숙해 있다’고 경고한다.<sup>6</sup>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옛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설교의 첫째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철저히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장 처절하고도 비참한 최악의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은 결코 회심을 방해하는

<sup>6</sup> 이안 머리, 부흥과 부흥주의, 신호섭역, 부흥과 개혁사, 2005, p.543.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회심을 진정으로 방해하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가장 우선되는 의무는 양심을 각성시킴으로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죄를 단순히 용서를 바라야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악한 원리로 이해하도록 죄를 사실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죄인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본성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7</sup>

그러나 교회를 단지 숫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에 휩쓸린 경영 마인드를 가지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용하시는 은혜의 외적 도구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다. 회개와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기존 신자가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목회자는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다.

만일 교회에서 회심을 가르치지 않거나 신앙고백서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 내에서 교리가 없는 피상적인 악한 신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이치일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감정 충만한 종교적인 그 무엇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방식이라고 가르치면 교회당에는 회심하지 않는 신자들이나 진리의 알은 물가에서 만족하여 큰 바다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신자들로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도 없고 성령의 견인하시는 은혜도 없고 참된 믿음이 없으니 도중에 신앙을 배교하거나 낙오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완고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인 개념만을 얻은 채 떠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당연한 진리를 견고하게 믿어야 한다.<sup>8</sup>

조나단 에드워즈는 20세 때, 이미 대학 졸업 토론에서 개혁주의적 전통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였고<sup>9</sup>, 그리고 나중에 50대 중반에 교회에서 해임이 된 사안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회심 간증을 중요시 여겼을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평생의 작업으로 여긴 것을 본다<sup>10</sup>. 그가 히5:12<sup>11</sup>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자연

<sup>7</sup> 같은 책, p. 555.

<sup>8</sup> 롬10:17

<sup>9</sup> '오늘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그것은 신교도들에게 개혁주의적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일이다' 더글라스 스위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사역, 김철규역, 복 있는 사람, 2011, p.59

<sup>10</sup> 에드워즈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타드는 세례 받지 않는 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거나 그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 이런 원칙은 때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교회 사역한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이 문제를 표면에 드러냈고, 교인 등록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할 때 회심의 간증을 요구하였는데 교인들의 과반수 이

의 빛(자연 계시)은 하나님을 알도록 못하기에 오직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일반 신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짐승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놓는다.<sup>12</sup>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은혜의 외적 방편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전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필자는 주일 설교 주제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시리즈로 주일에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원론과 교회론을 설교하였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매주 한 장씩 설교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각 권을 한 권씩 개관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에선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 동안 신론을 다룬 '하나님을 아는 지식'(J.I.패커)와 개혁주의 구원론을 다룬 '성도의 삶'(싱클레어 퍼거슨) 그리고 개혁주의 성화론을 다루는 '죄와 유혹'(존 오웬)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에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깨닫고 1년에 2번 실시하던 성찬식을 매달 1회 시행하게 되었다.

이런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교회에게 유익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먼저 필자가 많이 배우게 되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인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지식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자라났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들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용어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목사와 교인 모두 간혹 내용이 산으로 가기도 하였었다. 다시 한다면 소교리 문답을 먼저 배우거나 하이델베르크를 먼저 가르쳤을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구원론을 다룬 성도의 삶을 소그룹에서 나눌 때는 알미니안 배경을 가진 교인들과 논쟁을 하는 소그룹도 있었다.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가 힘들었는데 사랑 안에서 휴전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지금은 분석적인 존 오웬 목사의 책에 역시 대부분의 소그룹들이 고전하면서 가고 있지만 기쁨을 누리고 있다.

###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행20:29-30)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내다봤다.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을 내다봤

---

상의 반대로 에드워즈의 이 노력은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해임이 되었다. 그는 교인들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이 원칙을 세우려고 한 것이었다. 같은 책, 159-161쪽.

<sup>11</sup>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sup>12</sup> 쇼나단 에드워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서문강역, 지평서원, 1994. p.20-28.

다. 이미 그런 움직임과 추세가 교회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13</sup>

목회자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으로 맘을 놓아선 안된다고 본다. 사람들의 심령은 죄로 부패하여 있어서 진리를 간직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진리가 가짜이거나 유효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둔 사람의 심령이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늘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마치 밀 빠진 독처럼 그 안의 내용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필립 샤프가 쓴 '스위스 종교개혁'편에 보면, 칼빈 선생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그는 동생과 친구들이 개신교로 전향하자 카톨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여생을 조용한 연구생활로 보내려고 한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통에 가려는 지름길이 막혀서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서 우회도로로 가려고 한다. 공교롭게도 제네바는 파렐이란 사람에 의해 종교개혁으로 전향한지 2달 정도 된 때였다고 한다. 게다가 그곳은 프랑스어권 지역이었다고 한다.<sup>14</sup> 파렐의 저주를 퍼붓는 강한 권면에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모든 것이 잘 풀렸는가? 3년 만에 내쫓긴다. 그리고 독일의 슈트라스버그에서 3년을 성공적으로 사역하는데 다시 제네바가 부른다. 그리고 제네바로 또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제네바로 복귀한 그는 아무런 고난 없이 사역을 잘 하였는가? 그는 제네바로 돌아와서 24년간을 사역하였는데 초반 15년 안팎으로는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이었다고 한다. 결혼생활은 단 9년 정도 밖에 못했으며, 많은 질병을 가진 채 살아야 했고, 그리고 소위 애국자 그룹과 리버틴(자유주의자들: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한 사람들)들이 집요한 반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테러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읽었다. <sup>15</sup>

말씀을 전하는 사역 환경에는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역하는 환경이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sup>16</sup>

역시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계속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려움

<sup>13</sup> "내가 마게도냐로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딤후1:3-4a)

<sup>14</sup>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는 독일어권도 있다. 여러 언어권이 연합하여 이룬 나라다.

<sup>15</sup> 제네바 시민들이 그렇게도 말씀에 근거한 치리를 받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이다.

<sup>16</sup> 행20:28,32

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가 있다. 소위 개혁주의 방식의 목회는 인기가 없다. 필자의 신학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말을 들어야 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개혁주의자 하나 나왔네' '그렇게 목회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등 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목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실상 교리적인 색채가 사라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필자는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안다.

칼빈 선생의 글을 소개하려고 한다. 수많은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흔들릴 수 없는 목회관을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 곧 오로지 교회의 동의를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지니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하였음을 납득하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곧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이 과연 스스로를 확증하므로 성경을 감히 증거와 이론에 예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완전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얻은 사실이지만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기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 마치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를 눈으로 바로보는 것처럼 -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력한 확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논증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며 교회의 동의로 그 권위를 세우고, 혹은 다른 도움을 받아 그것을 확증하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근본이 되는 터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언제나 의혹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7</sup>

사실상,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거나 강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되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르칠 결심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sup>17</sup> 기독교 강의 7장과 8장의 일부분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필립 샤프, 교회사전집8, 박경수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459-460쪽.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6-8)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들의 길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경주해야’ 하는 힘든 길이 있다. 단기간에 교리나 신앙 고백서등을 가르쳤다고 참된 교회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쉬 사라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여전히 전해야 할 진리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다.

## 결론

필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제안을 하였다. 겸손의 태도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것과 사역 환경이 점점 힘들게 보이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이다. 필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필자와 여러분의 목회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한다.